



Good Morning Everybody	04 김현숙 이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 “어두운 밤을 비추는 커다란 빛이 되어”
Good Morning Family Event	06 2019 소아청소년암가족 여름캠프 – “제주도에서의 힐링, 그 2박 3일의 추억” 08 2019 송년잔치 – “1년의 끝자락 겨울의 선물”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10 기업 사회공헌① –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 “미소와 사랑으로 그려진 벽화” 12 기업 사회공헌② – (주)제닉스크리에이티브 – “제닉스와 함께 한 Special 오! 해피데이” 14 기업 사회공헌③ – 한국기술사회 – “송편을 빚으며 나누는 따뜻한 마음” 16 기업 사회공헌④ – 메리츠화재 – “메리츠가 건네준 따뜻한 겨울 선물” 18 후원자 이야기① – 이삭희 – “아이들을 위해 흘린 땀방울” 20 후원자 이야기② – 더메리프로젝트 – “크리스마스를 꾸미는 손길” 21 후원자 이야기③ –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사람들”
Good Morning My House	22 하우스 이용자 이야기 (김준성 母) – “사랑과 희망의 한빛하우스”
Good Morning Hanbit	24 2019 하반기 한빛/후원 NEWS 25 2019 하반기 후원자 명단 26 2019 결산현황 27 2019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28 후원안내 및 모집 29 정기후원(CMS) 신청서 30 포토에세이 31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먼저 소아암NGO한빛에 인사를 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소아암NGO한빛의 전신인 한빛사랑회에 참여하게 된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 유철주 대표님, 박홍이 회장님, 유영권 교수님과 함께 티를 마시면서 한빛사랑회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빛사랑회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던 일,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 결정하였던 순간, 터전을 마련한 후 오프닝 행사에 참여한 일 등은 저에게 모두 기쁜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홍이 회장님은 아코디언을 즐겨 연주하셨는데, 각자 악기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위해 연주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도 플루트를 막 배우기 시작한 때라 적극 찬성하고 열의를 가지고 플루트를 연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플루트를 연습하던 저는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아쉽게도 플루트 연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악기 연주는 저의 기대와는 달리 무산되었지만, 한빛사랑회의 교수님들과 악기 연주를 준비하던 일은 특별히 즐겁고 보람된 체험으로 기억됩니다.

커다란 빛이 되어



그때만 해도 한빛사랑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소아암NGO한빛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고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도 소아암NGO한빛의 가장 큰 성과는 아픈 순간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격려하며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한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커다란 빛으로 남아서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소아암NGO한빛 이사

김현숙

제주도에서의 힐링. 그 2박 3일의 추억



2019 소아청소년암가족 여름캠프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마냥 설레거나 행복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는, 한마디로 ‘엄두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이들의 컨디션과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염려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오랜 기간의 입원과 치료로 지쳐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암NGO한빛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여유가, 또 누군가에게는 활력이,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여행이 소아청소년암 아이들과 가족분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길 바라며, 1년에 한번 의료진들과 함께 떠나는 2박3일의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드림힐링캠프’인데요, 한빛사랑회 여름캠프가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후원이 더해지면서 더욱 질 높은 힐링캠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조금 특별하게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무더운 8월, 아이들과 가족, 의료진, 스태프들이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묵으며 제주도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바비큐 파티 등을 즐겼답니다. 일상의 힘듦과 여행하는 동안의 불안감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맘껏 웃고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할 수 있는 일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할 수 있기에, 그 특별함이 더욱 빛나고 소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아암 NGO한빛은 소아청소년암 아이들, 그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온드림 힐링캠프란?

가족화목 / 긍정희망 / 좋은만남 / 공감100% / 용기
위로 / 소중한 추억 / 씬터같은 존재 / 말하지 않아도 위
로가 되는 존재 /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는 나눔의 시간



온드림힐링캠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건 무엇일까요?

- 비행기!! 하하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가는 것을 원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하가 너무 좋아했어요.
- 해수욕장!! 바다에서의 해수욕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한번도 해수욕장에 가본적이 없었어요. 의료진들과 함께하니 안심하고 물놀이를 했네요.
- 장기자랑!! 하하들이 각자의 재능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기특하고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고 즐기는 내내 행복했어요.



온드림 힐링캠프에 참여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웅크리고 있었던 마음과 어깨가 활짝 펴짐을 느끼며, 우리 가족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느끼고 갑니다.
- 하하했던 경험을 뒤로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하는 우리 하하가 웃어서 저는 열배 행복했습니다.
- 스태프들의 호흡적응!! 많은 준비!! 따뜻함!! 배려!! 잊지 못할 것입니다.
- 병원에 오래 호시는 분들께 이런 엄청 좋고 재밌는 캠프가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참가해보시라고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긴말이 필요한가요?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무슨 일하더라도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2019
송년잔치

1년의
끝자락

겨울의 선물

1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1년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가족들 또는 연인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1년동안 수고했다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건네기도,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죠. 복작이는 거리를 걷기도 하고 근사한 식사를 하기도 하며 연말 분위기에 맞는 공연을 보거나 영화관을 찾기도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우리들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한해의 소망을 가져보고 1년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연말은 어떨까요?

힘든 치료과정을 너무도 잘 버텨내는 지금이기에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병원생활에 너무 지쳐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만약, 연말이 특별하다면 그 특별함을 응원하고 싶고 지쳐있다면 힘내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연말의 분위기를 병원에서 치료중인 아이들과 가족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NGO한빛은 매년 겨울마다 답답한 병원생활을 잠시나마 벗어나서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앞으로 이겨내야 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송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은 기린아(소아청소년암환자 모임)분들 덕분에 멋진 행사장으로 바뀌었고 겨울왕국의 엘사, 안나 분장과 올라프 인형탈은 아이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우드 크리스마스트리 꾸미기, 캐리커처 그리기, 풍성한 선물과 간식나눔도 함께 했습니다. 기린아분들의 '완치할수있어'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과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태권도부의 태권도시범공연, 피아니스트 김혜민님의 피아노공연, PK댄스팀의 댄스공연, 매직산타극 '내가 산타라고?'의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즐겁고 마음 따뜻해지며 행복하셨기를 바라며, 2020년의 송년잔치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뵈겠습니다!!

송년잔치 후원 : 강동호마이너갤러리, 구로궁동종합사회복지관, 롯데제과, 아이들과미래, 앙블랑,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한국소아암재단, 함정수님(함태헌 父)
송년잔치 재능기부 : 수연공간 소속 작가 4명

* 2019년 송년잔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미소와 사랑으로 그려진 벽화

기업사회공헌활동①-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12/11(수)에 한빛사랑하루스를 찾아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국오노약품공업 전직원 및 일본본사에서 4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벽화그리기, 하우스 청소, 크리스마스 꾸미기 및 선물전달 등을 진행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소아암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며 꼼꼼하게 벽화를 그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하우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꾸며준 직원분들의 사랑 덕분에 하우스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우스를 위해 큰 선물을 남겨주신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모든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벽화를 볼때마다 여러분의 미소가 떠올라서 늘 가슴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은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남기고 간 사랑은 하우스에 그대로 남아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닉스와 함께 한 Special 오! 해피데이

기업사회공헌활동@-(주)제닉스크리에이티브

(주)제닉스크리에이티브는 대한민국 No.1 게이밍 기어 전문회사로 LED 키보드 등 일상생활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이면서 꾸준히 봉사와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까지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단체와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피빈재단을 통해 우리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닉스와 함께 한 활동은 'Special 오!해피데이'행사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봉사자 어머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음식을 갖고 병원에서 투병중인 소아암 아이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2019년 11월의 오해피데이를 함께 해주셔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김밥을 말고 과일도 깨끗이 닦아 과봉을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간 뒤 도시락을 싸고 나눠드리는 일까지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멋진 인형탈을 쓰고 아이들과 즐거운 포토타임도 갖고, 2부로는 미술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LED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하며 병원생활이 무료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긴 시간동안 봉사를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제닉스 임직원 분들의 사랑이 느껴졌고,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특별한 하루를 특별한 열정과 진심으로 채워주신 (주)제닉스크리에이티브의 모든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편을 빚으며 나누는 따뜻한 마음

기업사회공헌활동©-한국기술사회

1. 한국 기술사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술사회는 공학(Engineering)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기술 전문가 단체로 엄격한 자격검증을 거친 국가 기술 최고 자격 취득자인 기술사들이 현재 84개 기술 종목에서 5만 2천여 명이 배출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를 다루는 최고의 엔지니어 전문가 단체입니다.

2. 한국기술사회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기술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술봉사단을 통해 소아암 환아와 취약계층 및 소외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탈북민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사업,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환경보호활동, 연탄나눔 등의 봉사활동과 물품 전달 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고,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도 학생 멘토링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하·동절기 안전점검 등의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소아암NGO한빛과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었나요.

한국기술사회 기술봉사단은 2019년에 소아암NGO한빛에서 보살피는 소아암 환아를 위해 3번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봉사활동(4/27)은 유한김벌리에서 한국기술사회에 후원한 황사마스크 2,000매와 신촌세브란스 소아암병동 학교에 프로젝트 빔 스크린을 전달하였고, 두번째 봉사활동(9/21)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송편빚기 및 물품(황사마스크 1,500매, 무균 음료, 과일 등)전달 행사를 실시하여 추석을 앞두고 신촌 세브란스 소아암 병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세번째 봉사활동(12/21)은 연말연시 소아암 환아를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로 한국기술사회에서 모금된 쌀 80Kg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분들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술사회 기술봉사단의 사회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술봉사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랑을 나누면 우리 사회가 같이 행복해 질 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다"고 말하며, 자기들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작년 추석을 앞두고 한국기술사회 기술봉사단 가족 16명이 송편을 직접 빚어 신촌 세브란스 소아암 병동의 각 병상마다 전달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 소아암 환아들이 천진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들 얼굴에서 피어나던 잔잔한 미소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통원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아암 환아들과 부모님들!
천진스러운 환아들, 미소를 머금은 부모님들에게 성경말씀이 위로와 큰 힘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장 2절)



메리츠가 건네준 따뜻한 겨울 선물

기업사회공헌활동④-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사회공헌기금 배분 캠페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주세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소아암 아이들에게 환절기부터 시작되는
남들보다 긴 겨울이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합니다.

6,500

by.한빛사랑후원회

100.0%

6,500,000

자세히 보기

응원하기

한빛사랑하우스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하여 365일 쉬는 날 없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이 언제 오더라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두는데 2019년 겨울에는 매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메리츠화재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몸과 마음까지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작년 겨울 진행중이던 해피빈 모금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이라는 모금함에 650만원을 후원해 주셨고 다양한 겨울용품들을 통해 하우스와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우스의 침구류를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뜻한 핑크와 깔끔한 그레이 컬러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이불패드와 이불, 베게커버까지 교체하였는데 화사한 색의 침구류를 본 하우스의 식구들은 모두 마음까지 산뜻해진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하우스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 점퍼를 선물하였습니다. 아이들마다 어떤 디자인과 색을 좋아할지 한명 한명을 위해 고민하며 구입하여 나눠주었고, 포근한 무릎담요도 넉넉히 주문하여 하우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투병중인 아이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겨울은 가장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겨울은 결코 가장 추운 계절이 아닌 가장 따뜻한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추운겨울을 따뜻한 겨울로 만들어준 메리츠화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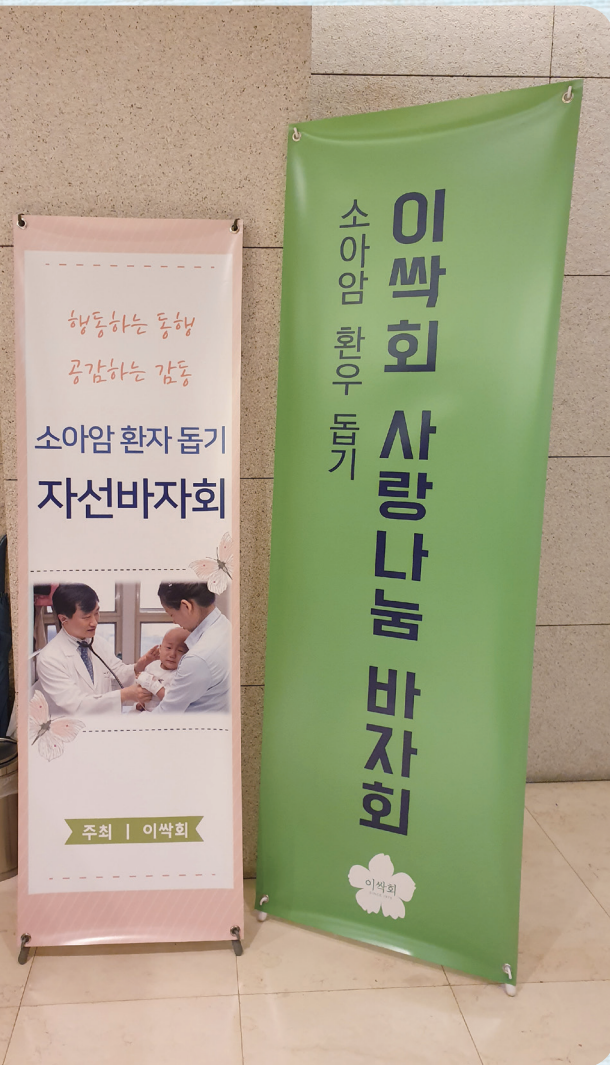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해 흘린 땀방울

후원자이야기①-이삭희



1975년부터 나눔을 실천해온 이삭희는 이화여자 부속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매년마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한 것이 벌써 4년째 이어져 오며 우리 단체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6일 날씨가 맑았던 금요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문화센터 4층 토포즈홀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협력업체와 봉사자들이 모여 아침부터 부스를 꾸미고 물건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곧이어 바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어느새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정성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를 위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삭희 지원으로 지원이 긴급했던 7명의 환아가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신청하여 치료비집행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오랜 시간 행사를 준비하고 당일에도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에 한번 앉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신 이삭희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꾸미는 손길

후원자이야기②-더메리프로젝트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빛사랑하우스에는 특별한 손길이 찾아옵니다. 바로 더메리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인데요, 매년마다 세브란스병원 뿐만 아니라 소아암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한빛사랑하우스에도 찾아와 하우스에 필요한 생필품들도 한 차 가득 싣고 와서 선물로 주시고, 각 층마다 예쁜 크리스마스트리도 꾸며주십니다. 엄마들도 아이들을 챙기느라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년마다 찾아오셔서 멋진 트리를 꾸며주시니 하우스에 절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깊어집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데 벌써 몇년째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는 더메리프로젝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생필품들도 하우스에 꼭 필요한 물품들만 꼭 꼭 골라 보내주셔서 하우스 곳곳에서 너무 잘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깜짝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더메리프로젝트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사람들

후원자이야기③-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연세암병원 입원간호팀
기쁨나눔 후원

-소아암환아 하우스 물품 지원-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은 암 환자가 입원해있는 병실을 24시간 돌보면서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소통하는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웃음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으로 늘 긴장하며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며 보호자분들과도 깊이 있는 소통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에서는 또 한번의 나눔을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단체를 정해서 모아진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 이

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 또 한번 한빛사랑하우스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래간호팀의 이러한 결정을 듣고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면 좋을지 오랫동안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한 뒤 물품들을 구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되어 고장이 잦았던 한빛하우스 3층의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불편했던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자 누구보다도 하우스를 이용하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또 밥솥도 새로 교체하게 되었고, 매월마다 진행되는 오해피데이를 위해 전기 후라이팬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공기청정기 2대와 기타 생필품들도 한 차 가득 구입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비품들과 창고 가득 채워진 물품들로 인해 하우스에서 지내는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과 부모님이 계시는 한빛사랑하우스까지 돌봐주시는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희망의 한빛하우스



한빛하우스를 처음 만난 건 준성이가 2015년 1월 관해치료 후 퇴원을 앞두고 지방에 있는 집으로 바로 퇴원해도 되는지를 두고 고민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열이 나면 어쩌나 염려가 끊이지 않던 차에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통해 한빛하우스를 안내받고 이용하게 되었는데 병원 가까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처럼 준성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마음껏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하우스에서는 권사님이 보호자들을 위해서 김치며 밑반찬을 계속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을 챙긴 이후 내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았던 엄마들도 오랜만에 제대로 식사를 차려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우스에 온 지 이틀만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뒹구는 준성이를 데리고 권사님과 목사님 도움으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신속하게 항암부작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했던 한빛하우스는 저와 준성이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안심 그 자체였습니다. 2015년 타인조혈모세포 이식을 무사히 받고 한빛하우스와 작별을 한 뒤 집으로 왔는데 2017년에 학교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성이 재발되어 다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치료와 긴 입원을 지나 회복을 기다리며 집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하반기에 항암부작용으로 입퇴원이 잦아지면서 한빛하우스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유철주교수님께서 수혈부작용과 골수회복을 대비하여 수혈을 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하셔서 준성이는 출혈에 대한 걱정에 집에 가지 않고 하우스에서 지내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우스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갑자기 코피가 나서 멈추지 않거나 한밤중에 잇몸에서 피가나서 멈추지 않아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갈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린 적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응급실까지 준성이를 차에 태워 주셔서 응급치료를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응급상황의 준성이에게 한빛하우스는 119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권사님 목사님이 함께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한빛하우스에서의 생활이 끝났지만 2020년 다시 하우스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신종코로나로 인해 나라전체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혈액수치가 낮은 준성이는 누구보다

도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더군다나 경북이 집이라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한빛하우스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후로 집에 다녀오지 않았고 선별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뒤에도 아빠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한빛사랑하우스에서는 대구, 경북의 감염요소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치료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대구경북의 환아들을 배려해서 품어주셨습니다. 감염관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도 많지만 대구, 경북지역 환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한빛하우스 선생님들과 우리 소아암교수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집에 못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아이도 있지만 나름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준성이는 같은 층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나 5~6살 정도되는 아이들의 역할놀이, 블록놀이, 노래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그렇게 좋다면 미소짓기도 합니다. 현재 준성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있지만 한빛하우스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담담히 받아들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한빛하우스는 준성이와 저에게 피난처입니다.

병원과 집의 연장선인 한빛하우스는 퇴원하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쉬어가는 곳이자 집처럼 따뜻한 공간입니다.

준성이는 한빛하우스에서 얼마간 지내면서 신종코로나를 잘 견뎌낼 것입니다. 골수가 회복되고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자는 이곳 한빛하우스에서 큰 사랑의 빛을 쬔으니, 언젠가 아이가 회복되면 꼭 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빛하우스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사랑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하우스는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한빛하우스 감사합니다.



2019 하반기 한빛 NEWS



2019 제22회 소아청소년암가족 「여름캠프」

제22회 여름캠프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가족 100명과 스텝들이 모두 8/18(일)~8/20(화)까지 제주도에서 의미있는 2박3일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2019 송년잔치

한 해 동안 소아암과 싸우느라 수고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2019 송년잔치가 12/18(수)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엘사, 안나로 변신한 봉사자와의 만남으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색회 후원금 전달식

10/8(화)에 연세암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색회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이색회(이화여자대학교부속 유치원 학부모 봉사회)에서는 올해 바자회를 진행한 수익금 75,000,000원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지원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신 이색회 회원 및 바자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사랑하우스 건조기 구입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에 각각 건조기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 층마다 건조기를 준비하였으니 이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원회원

(2019년 7월~12월)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순호,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목미수, 박정순, 배정임, 변미라, 오미영,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분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두진, 김병천, 김선정, 김양현, 김영숙, 김영은, 김영희, 김유민, 김은경, 김은수, 김재훈, 김중수, 김주희, 김지선, 김진국(배봉선), 김진소, 김진아, 김준희, 김해용, 김현이, 김현정, 김혜숙, 김혜연엄마, 김혜진, 김희진, 나수연, 모명환, 모민희, 묵현희, 문경순, 문숙희, 박경자, 박미나, 박선정, 박선희, 박영란, 박옥선, 박우석, 박은선, 박은재, 박재준, 박정선, 박진배, 박태선,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기범, 백윤수, 백일영, 변은숙, 서연자, 서진근, 석미영, 성세희,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심소정, 안상민, 양재승, 양준모, 오한나,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유영숙, 유주영, 윤성현, 윤옥진, 이감우(이종엽), 이경재, 이광환, 이규강,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혁, 이영희, 이은우(이종엽), 이은정, 이인숙, 이정숙, 이정순, 이종숙, 이종호, 이주현, 이철수, 인수진, 장문수, 장수연, 정규성, 조길수, 조미영, 조형희, 지승연, 최문근, 최병숙, 최상민, 한경미, 현승준, 홍충란, 황은화, 황인희, 황정원, 황한별
2만원	강유미, 고희길(용천가스), 국아령, 권순호, 김나원, 김라임, 김미숙, 김미희, 김선화, 김수경2, 김수현, 김영자, 김예나, 김왕배, 김인기, 김재실, 김종옥,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윤성, 등촌교회사라전도회,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연제(서정혁), 석윤희, 송민정, 양혜란, 유경아, 유기옥, 윤이송, 윤정애, 은종선, 이동구, 이명순, 이배환, 이상호, आय미, 이윤선, 이지순, 이진희, 이현빈, 임재순, 임지선, 장미경, 장진희, 정광호, 정윤환, 장인호, 조달남, 진정문,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수영, 한윤희, 한재원, 한정화, 한혜선, 현도윤, 홍영숙
3만원	강진희, 고애란, 김경숙, 김경희, 김광재(최은희), 김수연, 김지윤, 김현진, 김홍익, 민주원, 박건희, 박성희, 박승원, 박유선, 박홍이, 변병숙, 송시원, 신동성, 유재덕, 이승순, 이정원, 이채윤, 주형준, 최병철, 최수영, 홍순명
5만원	강창무, 김도연-작은보탬, 김미숙, 김미숙(김주황), 김선희, 김은아, 김형기(김예준), 나오미여선교회, 대한예수회, 동아스지, 등촌교회 안나1,3전도회, 등촌교회 안나2,4전도회, 박민지, 신윤정, 신현주, 신희진, 양민열, 윤공심, 이승현, 창천교회병원봉사회
10만원	(주)제이제이무역, 강명선, 고복희, 권승연, 김영준, 박계숙(기쁜소식교회), 박송희, 배상열(배연정), 산돌교회, 이지은, 장준영, 한국예수님의아이들
15만원	정만희
20만원	김미영, 이지은
25만원	배길선
30만원	이지우
40만원	(재)청아장학재단
50만원	배명자, 이은주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10,000	강예준	450,000	이강준
20,000	김원호, 조옥순	500,000	전주동명교회, 변병숙, 한유진
30,000	박병학	700,000	이색회 3기
50,000	김서영, 김정임, 류인옥, 이영빈	800,000	이색회 35기
100,000	강금아, 김민, 김서연, 김유건, 신혜경, 양현우, 이미자, 이승환, 주하음	1,300,000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200,000	임갑진(현주아빠), 한나선교회, 황윤솔	4,000,000	현금천사
300,000	장준영	10,000,000	한국오노약품공업
400,000	송민선(박유진모)	50,000,000	이은경
436,100	표현준	67,274,100	해피빈(7~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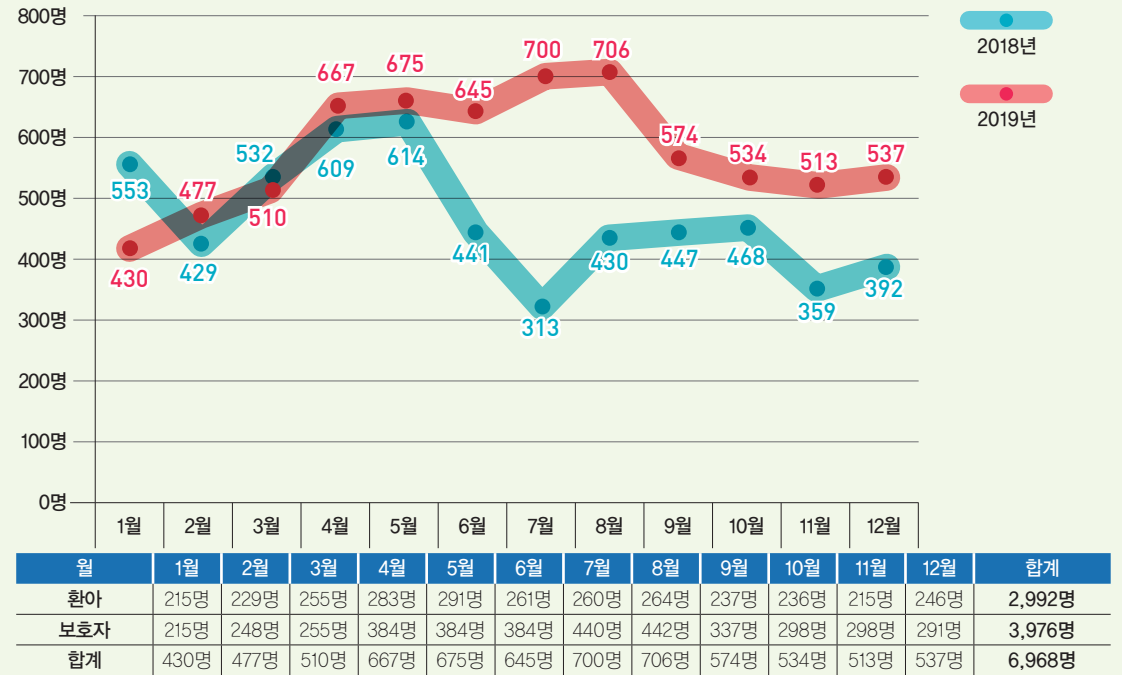
2019년 한빛사랑후원회 사업수지 결산서

(2019.01.01~2019.12.31)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전년 이월금	199,866,109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전년이월금 소계	199,866,109	1) 인건비	
2. 후원금 수입		1-1) 급여 및 수당	49,630,390
1) 정기후원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650,020
1-1) CMS후원	64,462,295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6,305,59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40,930,000	1-1) 인건비 소계	61,586,000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27,170,000	2) 운영비	
2-1) 정기후원 소계	132,562,295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1,522,710
2) 특별후원		2-2) 물품구입비	1,268,421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54,085,000	2-3) 여비교통비	56,000
2-2) 특별후원	113,116,100	2-4)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택배, 주차 등)	913,880
2-2) 특별후원 소계	167,201,100	2-5) 기타 운영비	2,092,480
3) 지정후원		1-2) 운영비 소계	5,853,491
3-1) 소아암환아 치료비후원	125,000,000	1-3) 홍보	7,078,132
2-3) 지정후원 소계	125,000,000	1-4) 자원개발 및 관리	10,946,905
4) 비지정후원(개인)	18,763,500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85,464,528
5) 비지정후원(단체,기업,재단)	22,790,910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후원금 소계	466,317,805	1) 공동운영비	
3. 잡수입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38,733,352
1) 이자수입	228,894	1-2) 정수기렌탈요금	1,628,300
2) 기타잡수입	742,640	2-1) 공동운영비 소계	40,361,652
잡수입 소계	971,534	2)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세입합계	667,155,448	2-1) 가스요금	4,611,290
		2-2) 방송수신요금	427,460
		2-3) 방역요금	1,440,000
		2-4) 전기요금	4,164,210
		2-5) 수도요금	1,541,910
		2-6) 인터넷 및 전화요금	639,860
		2-7) 시설개보수비	26,791,000
		2-8) 재산세	855,520
		2-2) 한빛하우스(창천동) 소계	40,471,250
		3)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3-1) 가스요금	2,197,890
		3-2) 방송수신요금	359,380
		3-3) 방역요금	1,272,000
		3-4) 전기요금	1,066,920
		3-5) 수도요금	687,870
		3-6) 인터넷요금	227,590
		3-7) 시설개보수비	33,750
		3-8) 재산세	1,130,160
		2-3) 사랑하우스(연희동) 소계	6,975,560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87,808,462
		3.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17,176,482
		4. 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지원사업(기린아&곰드림)	3,765,170
		2)소아암가족지원사업	18,459,628
		소아암환아지원사업 소계	22,224,798
		5. 잡지출	466,750
		잡지출 소계	466,750
		세출합계	213,141,020
잔액			454,014,428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1. 2019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2. 2019 한빛사랑하우스 후원물품 내역

1월	본죽(쌀 40kg, 죽 50개,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전자렌지, 퍼실세제, 프릴주방세제), SK플라즈마(수건 40개, 미니차약칫솔 20set, 소금치약 10set), 세브란스신헌협동조합(후라이팬 외 11종), 서대문자원봉사센터(수제비누 30개), 이빛나(쌀 40kg)
2월	본죽(쌀 40kg, 죽 50개,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화장지, 키친타올, 유한락스), 소아암재단(쌀 40kg), 해피빈재단(두유 26개, 유산균 2box), 공동종합사회복지관(퍼즐 72set, 냉면사리 3box), SK플라즈마(무릎담요 20개, 핫팩 100개), 이빛나(쌀 40kg)
3월	본죽(쌀 40kg, 죽 50개, 김치 4box,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피죤, 비누), 소아암재단(뉴이스트앨범 200개, 쌀 40kg), 박혜준(원목교구 12종), 이빛나(쌀 40kg)
4월	본죽(쌀 40kg, 죽 50개, 치킨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유한락스, 화장지, 전기포트), 소아암재단(초코파이 15kg, 닥터10box, 빼빼로 10box, 몽쉘 10box, 고깔콘 10box, 소독제 4box, 애착인형 4box), 한국기술사회(황사마스크 20box), SK플라즈마(커피세트10box, 손세정제10개, 젤밴드 10개, 물티슈 20개, 키즈밴드 5box), 이빛나(쌀 40kg)
5월	본죽(쌀 40kg, 죽 50개, 치킨1box, 김치 4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키친타올, 포토씨유, 주방세제, 무기명(뉴이스트앨범 84장), 소아암재단(쌀 20kg, 메디폼 4box, 간장/된장 3개씩), 이빛나(쌀 40kg)
6월	본죽(쌀 40kg, 죽 50개, 김치 3box,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선풍기, 유한락스), 소아암재단(쌀 40kg, 양파 20box), 세브란스사회사업팀(볼세트 12box), 강동호마이너갤러리(뉴이스트 앨범 160장), 이빛나(쌀 40kg)
7월	본죽(쌀 40kg, 죽 50개, 김치 3box,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주방세제, 휴지, 키친타올, 섬유유연제), 이빛나(쌀 40kg)
8월	본죽(쌀 40kg, 죽 50개, 김치 3box,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퍼실세제, 잔치팬, 간장), 세브란스발전기금팀(그릇세트 5개), 소아암재단(분유, 기저귀 등), 세브란스신헌(냄비, 후라이팬 등), 이빛나(쌀 40kg)
9월	본죽(쌀 40kg, 죽 50개, 김치 3box, 치킨 1box, 상품권 50장), 삼성생명(포도씨유, 유한젠, 유한락스 3종, 주방세제), 공동복지관(김치10box), 해피빈(꽃감세트1box), 이빛나(쌀 40kg)
10월	소아암재단(쌀 40kg), 본죽(티켓 50장, 쌀 40kg, 김치 40kg, 치킨 1box), 아이들과미래재단(텀블러 79개, 쿠션 17개, 병어리장갑 24개)
11월	본죽(쌀 40kg, 김치40kg, 치킨 1box, 티켓 50장, 죽 50개), 삼성생명(크리넥스, 일화용비닐, 샴푸, 컨디셔너, 칫솔, 치약), 소아암재단(쌀 40kg, 휴지,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 과자 80BOX), 김혜연(쌀 40kg), 연세암병원 입원간호팀(공기청정기2, 쿠쿠밥솥1, 전기후라이팬2, 보일러교체, 휴지 외 생필품), 강성수굴 2box, 제닉스크리에이티브(퍼실, 참깨, 간장, 참기름)
12월	본죽(쌀 40kg, 김치 40kg, 치킨 1box, 티켓 50장, 죽 50개), 더메리프로젝트(휴지, 키친타올, 퍼실, 물티슈, 주방세제 외),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건조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믹서기, 에어프라이어), 소아암재단(쌀 40kg), 한국기술사회(쌀 80kg, 라면 2box, 식용유 3, 식초 1병), 권민서(요기보인형 10개, 굴 4box), 남산중앙교회(쌀 30kg)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루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루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사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사람의 생명을 갑자기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협하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 등
 소아암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면 숨쉬기도 답답하고, 오래 끼고 있으면 귀도 아프고,
 때로는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미세먼지가 걷히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도 완치되어
 더 이상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